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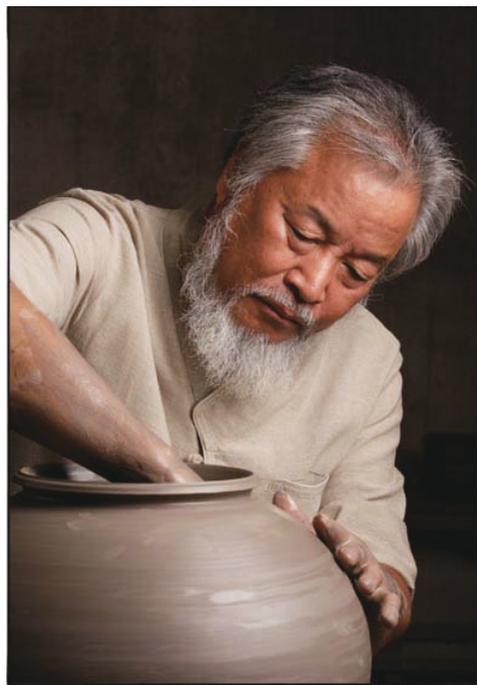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1호 사기장 백자 보유자

서광숙



도자기 명장 서광수



사기장 서광수 선생은 1948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서 부친 서순택과 모친 조경희의 6남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농가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1961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네 그릇 공장에서 일하면서 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곳은 전문적인 도자기 공장이 아닌 화분이나 꽃병 등을 만드는 칠기 공장이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성실하게 힘든 일을 하면서 3년간 어깨너머로 그릇 만드는 전 과정을 익혀나갔다.

그러던 1963년 당시 한국 전통 백자 전문가인 도암 지순택(1912~1993)이 강원도에서 이천으로 이주해서 ‘고려도요’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서광수 선생은 그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전문적인 도예가의 인생을 걷게

되었다. ‘고려도요’에서 서광수 선생은 태토·성형·조각·화공·유약·소성 등 도자기 제작 전과정을 기초부터 연마하여, 1971년에는 지순택요의 성형실장이 되었고, 1974년 전통 가마의 불을 주관하는 소성 실장이 될 수 있었다.

소성은 흙가마에 불을 지피 초벌은 800~900도 재벌은 1200~1300도까지 열을 내주는데 온도 조절을 제대로 해야 하는 도예에서 매우 핵심적인 작업이다. 그리하여 오랜 연륜이 있는 경력자도 기상조건 · 나무장작의 상태에 따라 불의 움직임과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어서 쉽게 업무를 맡기지 못하나, 그의 실력과 성실한 태도에 일찍부터 중책이 맡겨졌다.

위와 같이 지순택 문하에서 그는 도예계에서 점차 인정을 받게 되어, 드디어 1976년에는 이후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기도 광주시에 건립한 ‘도평요’의 가마장으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되어, 책임감 있게 10년을 일하였다.

그렇게 도예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던 중, 친구의 제안으로 ‘도평요’를 그만두고 1986년 자신만의 작업장으로 ‘산보요’를 열었다. 그러나 친구의 제안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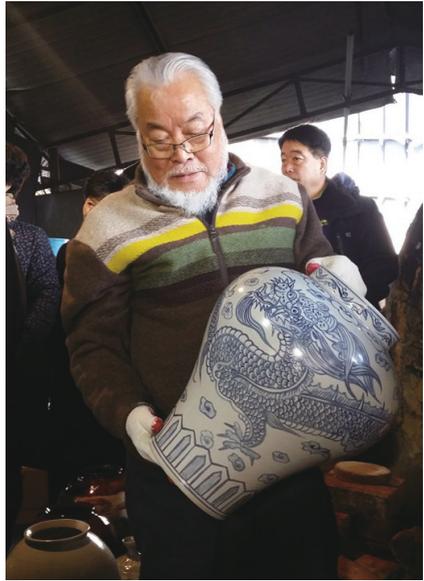
다르게 '산보요'는 주인이 친구가 아닌 서울 사람이어서, 그는 100만원 씩 세를 주며 가마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도자기에 대한 열정은 더해만 가서, 그 해 동료 도예가 6명과 더불어 '이천 도자기 축제'를 열었는데, 이 도자기 축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1994년에는 그에게 문화부 장관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이 축제는 2001년에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로 발전되어 이천을

도자기의 도시로 위상을 갖게 하였다.

한편 서광수 선생은 '도평요'와 '산보요'를 거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1992년에 마침내 이천시 신둔면으로 이사를 하고 '한도요'를 설립하여, 오랜 시간 고대하던 그만의 작품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고려도요' · '도평요' 등에서 다양한 기술과 경력을 바탕으로, 서광수 선생은 본격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오로지 백자의 맑고 깊은 유백색을 내기 위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념과 끈기로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시행착오를 이어 나갔다. 그리하여 이듬해 1993년에 원하던 색채를 내는 유약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발표하여 도예 분야에서 큰 반향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광수 선생은 백자 달항아리로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백자 외에도 청자 · 분청사기 등에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서광수 선생은 모든 도자기 종류를 흙으로 빚고 유약을 칠하며 전통 장작 가마로 굽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도예가로 인정되어, 2003년 대한민국 명장 제14호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41호 사기장(백자)이 되었다. 현재에도 서광수 선생은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에서 초청 전시회를 계속하며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도예가 서광수 소개

한도 서광수(70)는 이천생으로 올해로 꼭 56년째, 흙 빛는 일을 외곬스럽게 해오고 있다. 흙으로 벽을 쌓고 초가지붕을 얹은 그의 요장(窯場)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감돈다. 요장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제멋대로 생긴 기둥과 석가래처럼 '한도요' 직인이 찍힌 대개의 도자기는 든든한 형태 위에 자유분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광수는 인근의 홍재표(이조요), 김복한(한청요)와 여주의 조무호(석봉도예), 문경의 천한봉(문경요), 경기도 광주의 이 광(백담요)등 몇몇 도공들과 함께 한국전통도예계의 좌장격(座長格)에 속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린 나이부터 도자기를 접했다. 철이 들면서부터 지순택요에서 일하며 도자기의 기본적인 기술을 배웠고 도평요가 문을 열던 76년부터 80년까지 도평요에서 가마대장으로 있었다. 그렇게 20여 년간 다른 요장에서 도자기술을 익혀 86년도에 들어서 독립된 자신의 작업장을 열었다.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 축제를 보고 와서 이천의 많은 도자기 업체들이 함께하는 ‘도자기축제’가 의미 있



겠다 싶어 86년도에 서광수씨는 이은구, 유광열 등 도예가 7명과 함께 ‘이천 도자기 축제’를 처음 개최하기도 했다. 처음 시작은 남의 땅을 빌려 ‘도자기장터’처럼 열었지만 그 행사가 문화관광부의 관심을 끌고 도자기엑스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공로 덕에 그는 94년 문화부 장관이 수여하는 공로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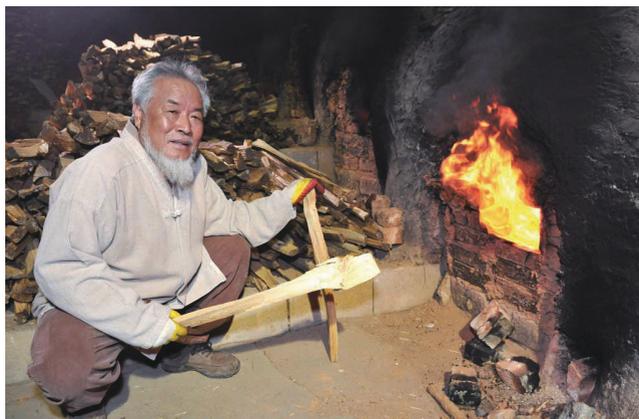


▶ 조선시대 백자를 굽던 봉우리가마

그의 작품은 크게 청자와 백자 분청, 그리고 진사(辰砂)도자기로 나뉜다. 특히 백자의 경우는 고 최순우(故 崔淳雨)선생(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조선 도공들이 빚은 백자를 일컬어 ‘무기교(無技巧)의 기교(技巧)’라고 찬탄한 그 어눌하고 넉넉한 백자와 무엇이 다른가’ 하고 눈씻김질을 할 만큼 닮아 있다. 특히 백자달항아리는 든든하고 넉넉하여 최순우선생은 새색시의 풍만한 엉덩이와 비교하기도 했다.

백자달항아리는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도자기로, 조선시대 백자의 정수로 꼽히는 수작(手作)의 하나다. 서광수의 ‘백자달항아리’도 조선의 그것처럼 원만구족(圓滿具足)한 형태미와 상하접합(上下接合)의 성형으로 인해, 대개는 찌그러져 있다.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를 즐기는 듯한 ‘거리낌 없다’가 서광수 도자미(陶瓷美)의 핵심이다.

이밖에도 십장생문각병(十長生文角瓶), 용문항아리(龍文壺), 차주전자(茶注子), 다기(茶器) 등 전통도자기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다.



청자는 관상용보다는 실생활용구가 눈에 띈다. 청자의 생명은 색(色)에 있다. 그의 말대로 "비색은 고려 시대에 놔두고 그 시대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청자의 다양한 문양과 기법, 그리고 형태의 변화가 초기·중기·말기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 내용은 이러한 의미론(意味論)을 잘 말해주고 있는 증거의 하나다.

분청사기(粉靑沙器)는 서광수가 백자 이상으로 사랑하는 장르여서 그 수적으로나 종류에 있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서광수의 분청사기에는 상감, 인화 조화, 박지, 귀얄, 철화문 등 분청사기의 거의 모든 장식 기법이 망라된 예를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호방한 그의 성격이 도자기에 스며있으니 이를 두고 '일체의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란 명제가 비로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의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한 느낌 뒤에 역동적인 힘의 이동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서광수 분청사기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무뚝뚝한 기형(器形)이구나 하고 생각하다보면 날렵한 문



양이 보는 이의 허(虛)를 찌르기도 한다. 이렇듯 서광수의 분청사기는 형식과 논리의 구애됨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불의 흔적과 요변을 중시하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때문에 가스 가마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초벌도 장작가마에서 할 만큼 장작가마에서 가가지는 묘미를 사랑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출처 : 한국도자재단(<https://www.kocof.org>) 도자자료실)작가(요장)소개

나의 아버지는 ‘도공’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본다.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지금의 이천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태어나셨다면 과연 무슨일을 하셨을까?

이천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태어나 가까운 서울로 가지 않고 흙과 함께 평생을 보내신 나의 아버지를 볼 때면 도공이라는 직업은 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 흙은 새로운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도자기들이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었고 나의 아버지 역시 도자기 산지인 이천에서 태어나 지금의 도공이 되셨으리라 짐작해본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학교에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알아 오라는 적이 있었다. 물론 매학년 초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했던 나에게 아버지의 직업은 사장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었다. 아버지께 기록부를 내밀었을 때 아버지가 적어주신 직업은 ‘도공’이었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었

다. 도공이 도대체 뭐지? 아버지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도공이라고 한다고 하셨다. 난 불만이였다. 다른아이들의 아버지는 회사원, 선생님, 사장님등 다양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의 직업은 도공이라니 한마디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 회사원이라고 아버지의 직업을 바꾸어 적어 제출하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점점 자라면서 이천의 도자기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유난히 아침잠이 없으신 분이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신다. 잠이 들꺼 나에게 아버지의 물레 돌리는 모습은 새롭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았다. 그냥 아주 당연한 일상의 하나였다. 불을 때는 날이 다가오면 소풍을 가기전날처럼 나의 마음은 설레었다.

불 때는 날은 말 그대로 잔칫날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먹을 것도 많고 때도 아닌데 친지들이 다모여 마치축제의 날처럼 시끌벅적 해서 유난히 불 때는 날이 기다려지곤 했다. 불 때 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부르셨다. 다 른날 같으면 그을음 묻는다고 멀리가 있으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고 활활 타오르는 가마 속을 가리키시며 저 아





름다운 불빛을 보라고 하셨다. 어린 나의 눈에는 그 불빛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 불빛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어떤 색의 물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빛을 아버지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어릴 적 아버지께 ‘아버지는 왜 도공이 되셨어요?’라는 질문을 자주 드린 것 같아 아버지는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다. 신이 한줌의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숨을 몰아넣어 숨쉬게 하였다고 하셨다. 한줌의 흙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신에 버금가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라면서 어느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 역시 대학에서 도자기를 전공하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도자기를 권하지 않으셨다.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웬만한 지극정



성이 아니면 도자기를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자신의 일에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들렸다. 4년 동안 도자기를 전공하고 학교를 졸업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흙의 느낌을 받고 흙을 내 마음 대로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흙은 정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어느새 흙과 40여년을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장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위치에 오르셨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한일에 대하여 그런 위치에 올라오신 것을 나의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신다.

지금도 나의 아버지는 그 어떤 칭호보다도 ‘도공’이라는 소리를 더 좋아하신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 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그 어떠한 유희과 타협에도 오로지 한길만을 고집하셨다. 소위 말해 ‘고집 불통’이셨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볼 때 마다 쉽게 편한 것과 변화되는 것에



따라간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나의 말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묵묵히 듣고 있을 때가 더 많다. 나의 아버지는 오늘도 물레들 돌리신다. 마치 물레가 돌아가는 것이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버지는 타임머신을 타고 물레와 함께 미래가 아닌 과거로 자꾸 자꾸 돌아가 어느덧 그 옛날 도공이 전통적인 기법으로 물레를 차는 모습이 되어있었다.

(글쓴이 : 서광수 명장의 장녀 서애숙, 2006)

도예가 서광수



겨울나무들이 늘어선 오솔길을 따라 서광수(70) 도예가의 작업장을 찾았다... 이천 토박이인 서광수도예가가 도자기와 인연을 맺은 지는 올해로 41년째이다. 자신의 가마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작업하고 있는 지금의 그가 되기까지 험겨운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86년도에 서광수씨는 이은구씨, 유광열씨 등 도예가 7명과 함께 ‘이천 도자기 축제’를 처음 개최하기도 했다.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축제를 보고 와서 이천의 많은 도자기 업체들이 함께하는 ‘도자기축제’가 의미 있겠다 싶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의 땅을 빌려 ‘도자기장터’처럼 열었는데 그 행사가 문화관광부의 관심을 끌고 도자기엑스포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이런 공로 덕에 그는 94년 문화부 장관이 수여하는 공로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전통백자이다. 무지백자 외에도 청화백자, 철화백자, 진사자기 등을 빚는다. 2달에 한번 가마 불을 지피는 데 가마를 여는 날

이면 주변지역과 서울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다. 서광수씨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의 작업과 전시를 후원하는 후원회가 조성돼 있어 가마 허는 날이면 사람들이 모인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통가마를 고집하는 것은 전통가마에서만 낼 수 있는 맛 때문입니다. 장작가마 작품이 눈에 익으면 가스가마에서 나온 매끈한 작품이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달항아리와 정병 등의 작품에는 불의 흔적이 남아있다. 진사자기는 요변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기물 전면에 동을 칠해 번조해도 가마 불의 움직임과 환원정도에 따라 붉은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져 나온다. 장작가마에서 완성된 작품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서광수씨는 이런 의도 할 수 없는 전통 가마의 묘미 때문에 가스 가마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초벌도 장작가마에서 하고 있다.





도예가 서광수씨는 발색이 좋은 철을 구하기 위해 철광을 찾아가기도 하고 유약재료로 쓰이는 도석을 직접 채취하기도 한다. 태토는 직접 수비한 흙을 판매하는 흙과 조합해 사용한다. 그의 백자유약은 양구도석과 은고개도석, 석회석, 대리석 등의 도석을 이용한다. 양구도석을 캐오던 지역이 군부대 안에 있어 구해오기가 힘들다고 한다. 유백을 띠는 무광백자가 그가 추구하는 백자 빛이다. 그는 지난 1996년과 97년에 서울과 대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98년은 일본 아바라기현과 후쿠오카, 고베, 도쿄 등에서 초대전을 갖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일본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는 편이며 올 가을 즈음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인전을 열기위해 전시장을 물색중이다. 이밖에도 2005년 5월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열리는 ‘한국 전통도예가전’에 초대돼 그곳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서광수씨는 도예를 전공한 딸이 자신의 작업장을 이어 받아 작업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젊은 작가들에게 당부한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너무 쉽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전통도자기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데 현재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의 이익에 급급해 마구 만들어 싼값에 판매하고 있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작가는 젊은 작가들이 이익에 좌우되는 작업이 아닌 우리도자기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월간도예』 3월호, 2003)



▶ 백자 달항아리



▼ 청화백자 당초문 대호



▶ 진사 요변 호



▶ 진사백자 주전자



▶ 청화백자 용문호 이중 투각호



▶ 철사백자 매조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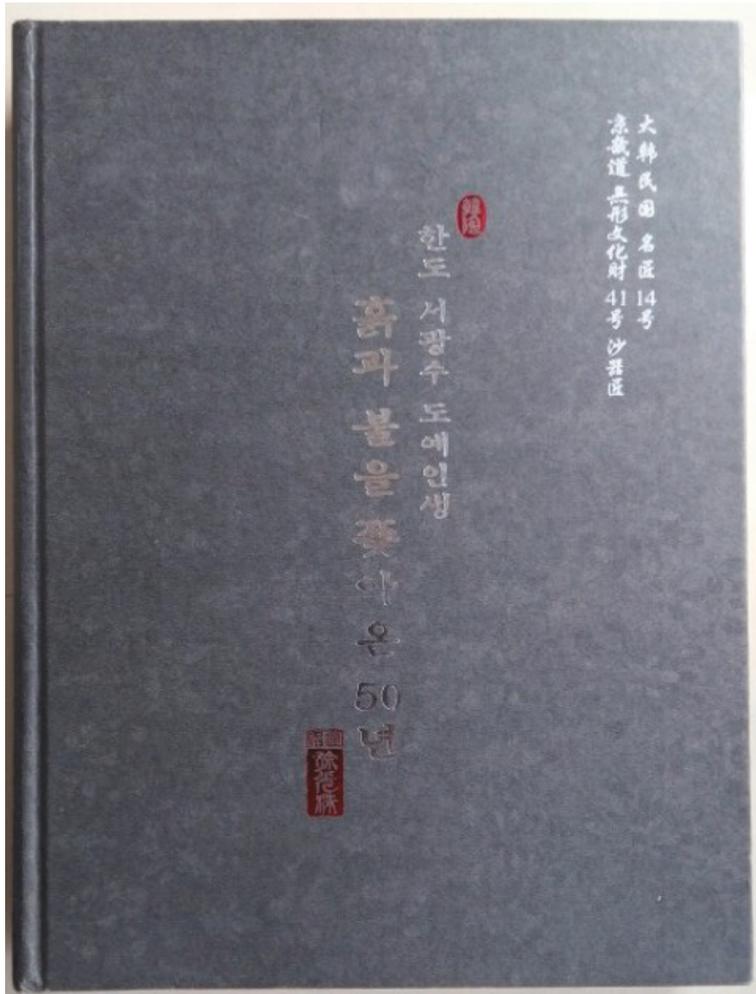


▶ 2005년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 비엔날레 개막식 시연

2006 Art expo, JAOOBK JAMTS CENTER 뉴욕 ▶







▼ 『(한도 서광수 도예인생) 흑과 불을 쫓아온 50년』(홈커뮤니케이션, 2011)

경기문화 재발견 시리즈
Gyeonggi Culture Rediscovery Series



흙과 불의 혼 사기장 서광수

The spirits of Earth and Fire
Seo Kwang-soo, Porcelain Craftsman

제29편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사기장

The 29th Showcase : Porcelain Craftsman
Intangible Cultural Treasure of Gyeonggi-do No. 41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문화재단

건강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입니다.

- ▶ 흙과 불의 혼(경기문화재단 제작, 경기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



한도요 홈페이지 www.handoyo.co.kr



주요 이력, 경력, 전시회

- 1961 도예계 입문
- 1971 자순택요 성형실장
- 1976 도평요 가마장
- 1981 제1회 한국 전승도예협회 회원전 1992년 12회
- 1987 제17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입선
제17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선
제2회 전통미술 공모전 특선
- 1988 체육부 올림픽 기장 봉사장
- 1991 한국사기장인 7인전 전시(경북궁)
- 1992 세계 미술협회 회원전(조선일보 전시관)
- 1994 문화체육부 장관 감사패
- 1996 한국 전통 공예가 협회전(소공동 롯데화랑 등)
한국 무형문화제 기능보전협회 운영위원
개인전(잠실 롯데 화랑)
제1회 전라북도 전통공예전시
- 1997 개인전(대구 봉성갤러리)
일본 초청전(미야자키 백화점 등 5곳 순회)
한국 전승공예 명품전(일본 메그로그 미술관)
무형문화제 전승협회 특별전(잠실 롯데)
제17회 전승공예 대전
- 1998 한국 전승공예 명품전(일본 고가가네고겐 미술관)
한국 도예 5인전(일본 킨데쓰 백화점)
일본 초대전(쿄토 킨데쓰 백화점 등 3곳)
일본 동경 무형문화제전 참가
- 1999 한미 문화 제전 주최 미주 순회전 참가
일본 북구주 이즈쓰야 백화점 초대전
- 2000 부산일보사 초대 부일갤러리 개인전
일본 후쿠오카 서일본 신문 주최 초대전
- 2001 일본 고배 백화점 초청 전시

- 2001 이천경찰서장 감사장
- 2002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초청 전시
 - 캐나다 한국 도자전
 - 27회 전승공예 대전(동상)
 - 경기 으뜸이 선정
 - 경기도 지사 표창장
 -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장
 - 일본 야나이 시장 감사패
- 2002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장
 - 경기도 도지사 표창장
 - 일본 야나이 시장 감사패
- 2003 대한민국 명장 선정 14호
- 2004 부산일보 초청 전시
 - 중국 경덕진 천년제 초청 전시
 - 무형문화제 기능보존협회 이사
- 2005 일본 나고야 박람회 참가
- 2005 경기도 무형문화제 41호 사기장(백자) 지정
- 2006 artexpo, JAOOBK JAMTS CENTER
 - 문경한국전통 찻사발 축제(문경시)
 - 전통공예명품전(한국 중요 무형문화제기능보존협회)
- 2011 예술의 저당 한가람미술관 초대 전시회
 - 한도 서광수 도예인생 50년 개인전
- 2015 부산시민회관 한솔 갤러리1층 개인전
- 2016 제18회 대한민국 명장전
- 2016 대한민국 명인명품 공예대전 수원문화재단
- 2017 중 .한 도자 예술가 (명장) 작품교류전



사기장 서광수 선생은 1948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서 부친 서순택과 모친 조경희의 6남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농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1961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네 그릇 공장에서 일하면서 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곳은 전문적인 도자기 공장이 아닌 화분이나 꽃병 등을 만드는 칠기 공장이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성실하게 힘든 일을 하면서 3년간 어깨너머로 그릇 만드는 전 과정을 익혀나갔다.

홈페이지 : 한도요(www.handoyo.co.kr)

문의 : 010-5255-0133(보유자)